인 사 말

이 상 윤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풀무원기술원 원장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2020년도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서고 있지만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는 오히려 2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미래가 아닌 이미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간 혹은 특정 매개체를 통한 질병 확산의 공포가 일상화되면서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바라보는 사회전반의 관점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와 함께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 유통 및 최종 소비단계까지의 투명한 이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시행된 잔류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는 국내 잔류농약 관리체계의 커다란 변화이며,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물을 통한 식품의 윤리적 측면 강화 및 식품이력관리와 그에 더해 대체육류(meat alternative)와 배양육(cell-cultured meat) 등의 활성화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생물종 보호라는 보다 높은 가치를 요구하는 소비자 욕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원료에서 관리해야 하는 생물학적 요인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품자체 뿐 아니라 그 제조현장의 미생물학적인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최종 식품의 미생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 중 병원성 미생물 관리(EPM, Environmental Pathogen Monitoring)의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풀무원은 식품제조 생산처의 오프라인에서 수행되는 원재료와 완제품에 대한 온라인기반 입고검사관리, 중요공정 관리점(CCP등)의 실시간관리, 제품개발단계, 제조단계, 유통단계 등 각 영역별로 분산관리중인 품질관리현황을 하나의 시스템기반으로 통합하고 일원화된 품질관리시스템과 포털의 구축을 통해 RTE(Real Time Enterprise)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모든 영역에서 IT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제조 및 유통이력 투명화와 그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강화라는 트렌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다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와 소속 학계, 산업계 종사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므로, 신기술과 트렌드의 선두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